

## 고전소설의 명사(明史)의 소설적 재현과 인물 구성의 상상력

—명사(明史)의 만귀비를 중심으로\*—

김문희\*\*

<차례>

1. 머리말
2. 『명사(明史)』의 만귀비에 대한 기록
3. 고전소설의 명사의 소설적 재현과 인물 구성
4. 고전소설의 명사의 소설적 재현과 인물 구성의 상상력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명사의 역사적 인물 만귀비가 고전소설에서 서사적 사건과 인물로 재현되는 양상을 통해 소설적 상상력을 탐구하는 데 있다. 만귀비의 역사적 기록은 야사(野史)인 『만력야획편』과 정사(正史)인 『명사』에서 비롯된다. 『만력야획편』의 만귀비 기록보다 『명사』의 만귀비 기록이 허구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 우리 고전소설에 이르러서 만귀비를 허구화하는 소설적 상상력은 극대화된다. <류황후전>에서 만귀비의 서사는 남녀 주인공의 고난을 강화하는 서사 프레임으로 재현된다. <유효공선행록>과 <화문록>에서 만귀비의 서사는 부차적 서사로 구성된다. 이 부차적 서사는 핵심 서사와 상동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재현되고 있다. <이씨효문록>에서는 만귀비를 모방한 악인형 여성 인물 만씨를 새롭게 구성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만귀비의 소설적 재현과 인물 구성은 역사를 소설화하는 소설적 상상력으로 가능하게 된다. <류황후전>의 남녀 주인공에게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17630)

\*\* 경기대학교 융합교양학부 조교수

고난을 강화하는 서사 프레임과 <이씨효문록>의 만씨라는 여성 인물의 구성은 악과 욕망을 재현하고자 하는 유희적 상상력이 작동한 것이다. 고전소설의 유희적 상상력에 의해 역사보다 더욱 강화된 악한 여성의 서사와 인물이 창조되는 것이다. <유효공선행록>과 <화문록>의 핵심적 서사와 부차적 서사의 상동적 프레임 구성은 어리석은 가부장과 임금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비판적 상상력이 강하게 작동한다. <유효공선행록>, <화문록>, <이씨효문록>, <류황후전>의 결말에서 나타나는 만귀비에 대한 관대한 처분은 소설 향유층의 윤리적 시각을 반영하는 윤리적 상상력이 개입한 것이다. 결국 역사적 기록인 만귀비의 서사는 고전소설 작가의 유희적 상상력, 비판적 상상력, 윤리적 상상력을 촉발하는 역사적 소재이기에 고전소설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 명사(明史), 만귀비, 소설적 재현, 인물 구성, 상상력

## 1. 머리말

고전소설에는 많은 악인형 여성 인물과 그들이 펼치는 서사가 전개된다. 고전소설의 악인형 여성 인물과 서사는 온전하게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창조된 경우도 있으며, 다른 텍스트의 영향 속에서 창조된 경우도 있다. 고전소설의 악인형 여성 인물과 서사 중에는 명사(明史)의 실존 인물에 기반을 두고 반복적으로 형상화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명나라 현종의 후궁인 만귀비가 그런 인물이다.

만귀비는 명나라 8대 왕인 현종의 후궁으로 현종의 총애를 받아 권세를 휘두르며 현종의 아이를 임신한 후궁을 강제로 낙태시키고 매질하거나 독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만귀비는 황후 오씨를 모함하여 폐위시키기도 한다. 궁녀 기씨가 만귀비 몰래 아들을 낳아 민가에서 양육하여 이 아들이 후에 성치제 효종이 된다. 만귀비는 여러 차례 효종을 해치려

고 기도했지만 실패하고 1487년 58세의 나이로 죽는다.<sup>1)</sup>

이처럼 명사(明史)의 만귀비는 정궁과 후궁을 질투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태자를 죽이려는 악인형 여성 인물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명사의 만귀비 서사는 우리 고전소설인 <유효공선행록>, <이씨효문록>, <화문록>, <류황후전>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설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들에서 만귀비는 가정내외적 갈등을 유발하는 전형적 악인형 여성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명사의 역사적 인물 만귀비의 서사가 <유효공선행록>, <이씨효문록>, <화문록>, <류황후전><sup>2)</sup> 등의 고전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것에 주목하여 명사의 만귀비가 고전소설에 재현되는 서사 양상과 인물 구성을 통해 역사를 소설화하는 소설적 상상력의 일단을 탐구해보려고 한다.

<유효공선행록>, <이씨효문록>, <화문록>, <류황후전>의 개별 작품 연구<sup>3)</sup>는 꽤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 각 작품의 성격, 특징, 의미 등은 많은

- 1) 임종욱,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화문화사, 2010, 412쪽.
- 2)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김기동 편, <유효공선행록>,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15~16, 아세아문화사, 1982. <이씨효문록>,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6~7, 경인문화사, 1993. 임치균·김태환·허원기·이지영 교주, 『화문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류황후전>,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20, 은하출판사, 1981.
- 3) 우선 <유효공선행록>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처럼 정리해볼 수 있다.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9. 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선청어문』 19,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1.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5. 조광국,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별열가문의 자기개신』, 『한중인문학연구』 16, 한중인문학회, 2005. 장시광,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 배달말학회, 2009. 김문희,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과 독서 과정』, 『한국고전연구』 3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이씨효문록>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용문, 『<이씨효문록>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0, 한국언어문학회, 1998. 임치균, 『<이씨효문록> 연구』, 양포 이상택 교수 환력기념논총위원회 편, 『한국고소설과 서사문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지만 만귀비의 서사와 인물 구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없는 편이다. 만귀비는 작품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인형 인물로 언급될 뿐이었다. 다만 <유효공선행록>을 연구한 박일용 교수, 필자와 <화문록>을 연구한 김용기 교수의 관심사가 본 논의의 방향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박일용 교수는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을 재론하면서 유연의 효행이라는 이념을 매개로 하여 현실적 갈등을 해소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또 하나의 우순 효행담 구조인 태자의 효행담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정치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유연과 태자가 모두 우순의 효행담 구조를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구성적 긴장의 이완을 막으려는 작가의 섬세한 구성 의식을 반영한 것<sup>4)</sup>이라고 보았다.

필자도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과 독서 과정

---

학』상, 집문당, 1998. 김동욱, 「<이씨효문록>의 ‘효’ 관련 서사와 다층적 서술의식 연구」, 『열상고전연구』 52, 열상고전연구회, 2016. <화문록>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수봉, 『화문록 연구』, 『개신어문연구』 1, 개신어문학회, 1981. 강인범, 『<화문록>의 서술기법과 주제의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이순우, 『<화문록> 연구』, 『한국고전연구』 2,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차충환, 『<화문록>의 성격과 장편규방소설에 접근양상』, 『인문학연구』 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 이지영, 『<화문록>의 텍스트 형성 및 서술시각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김용기, 『<화문록>의 서술방식과 주제의식의 관계』, 『한민족어문학』 66, 한민족어문학회, 2014. 김서운, 『<화문록>의 여성인물 형상화와 그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강문종, 『<화문록>, 투기(妬忌)와 불투기(不妬忌)의 서사』,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2017. 이지하, 『여성인물 형상화를 통해 본 <화문록>의 소설사적 위상 재고』, 『국제어문』 79, 국제어문학회, 2018. <류황후전>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진영, 차충환, 『<태이션적장록>과 <유황후전>의 비교 연구』, 『어문연구』 14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조재현,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필사본 <유황후전> 연구』,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4)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5, 164쪽.

을 논의하면서 <유효공선행록>의 서브스토리 라인인 태자의 서사는 우순의 성군담과 명효종의 역사를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태자의 서사를 명효종의 역사와 비교하고 성군의 전형인 우순의 성군담과 명나라 역사에서 성군으로 평가되는 효종의 성군담이 중첩되어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를 재현하고 있다<sup>5)</sup>고 논의하였다.

김용기 교수는 <화문록>의 서술방식과 주제의식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화문록>이 양진의 이야기, 화경의 이야기, 임금의 이야기에서 첩이나 후궁에게 미혹되는 유사 장면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제가와 치국이라는 집단적 가치 중시와 애정의 긍정이라는 개인적 감성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인물들의 시행착오와 수정을 통해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성장소설적 성격을 <화문록>이 드러내고 있다<sup>6)</sup>고 보았다.

이 세 논의는 <유효공선행록>과 <화문록>의 핵심 이야기와 부차적 이야기가 유사한 서사 구조를 지닌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할 만귀비의 소설적 재현 양상에서 다룰 관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효공선행록>과 <화문록>의 유사한 서사 구조뿐만 아니라 명사의 역사적 인물 만귀비를 소설화하는 더 많은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만귀비가 고전소설에서 새롭게 재현되는 서사 양상과 인물 구성 양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명사에서 연원하는 만귀비의 기록이 고전소설에서 어떻게 서사 구조화되고 새로운 인물 형상으로 변형되는지를 통해 고전소설의 만귀비 서사와 만귀비의 인물화에 개입되는 소설적

5) 김문희,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과 독서 과정」, 『한국고전연구』 3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222~229쪽.

6) 김용기, 「<화문록>의 서술방식과 주제의식의 관계」, 『한민족어문학』 66, 한민족어문학회, 2014, 318~319쪽.

상상력의 원천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만귀비의 역사가 기록된 『명사(明史)』의 만귀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고전소설에 재현된 만귀비의 서사 구성 양상과 인물 구성을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이러한 서사 구성과 인물 구성을 만드는 소설적 상상력을 구명할 것이다.

## 2. 『명사(明史)』의 만귀비에 대한 기록

『명사』 권113 「후비(后妃)」에는 명나라 헌종의 효목기태후(孝穆紀太后)와 공숙귀비만씨(恭肅貴妃萬氏)가 기록되어 있다. 효목기태후는 효종의 생모이고, 공숙귀비만씨는 만귀비이다. 『명사』 「후비(后妃)」의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에는 헌종과 만귀비, 그리고 기태후와 그의 아들 효종의 탄생과 성장담이 잘 그려져 있다. 다음은 『명사』의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의 기록을 번역한 것이다.

㉠ 효목기태후는 효종의 생모로 하현(賀縣)사람이다. 본래는 이민족 야오족의 토관(土官)의 딸이었다. 기씨는 성화제 때 야오족 정벌 과정에서 포로로 잡힌 후 액정(掖庭)에 들어가 여사(女史)가 되었다. 총명하고 문자에 정통하여서 내장(內藏)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당시에는 만귀비가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만귀비는 질투심이 심하여 후궁 중에 임신한 이가 있으면 모두 강제로 낙태시켰다. 헌비 백씨는 도공태자를 낳았으나 역시 해를 당하였다. 황제가 우연히 내장(內藏)을 거닐다가 기씨의 응대가 황제의 마음에 들어 황제가 기씨하였고 기씨는 황제의 총애를 받아 임신하게 되었다. 만귀비가 이를 알고 매우 분노하여 궁녀를 시켜 그녀를 잡아와 다스리게 하였다. 궁녀는 그녀가 뱃속이 비틀리듯이 아프다고 거짓으로 고하고, 안락당에 보내 귀양살게 하였다. 오랜 후에 기씨는 효종을 낳고 문감 장민(張敏)으로 하여금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다. 장민이 놀라서 말하기를, “황제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어찌 버릴 수 있겠

는가?” 하였다. 장민은 아기에게 쌀가루와 엿당을 먹이고 아이를 다른 집에 숨겼다. 만귀비가 날마다 살폈지만 찾지 못했다. 효종은 5, 6세가 되어도 감히 배냇머리를 자르지도 못하였다. 당시 오황후가 폐후되어 서내(西內)에 거주하였는데, 안락당과 가까워 몰래 이 일을 알고, 효종을 오가며 먹이고 키웠으나 황제는 알지 못하였다.

황제는 도공태자가 죽은 후로 오래도록 후사가 없어 안팎으로 모두 걱정하였다. 성화 11년 황제가 장민을 불러 머리카락을 빗기라고 하고 거울을 비추며 말하기를,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구나.” 하며 한탄하였다. 장민이 엎드려 말하기를, “소인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황제께서는 이미 자식이 있으십니다.” 황제가 놀라서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장민이 대답하기를 “소인이 당장 죽더라도 좋습니다. 황제께서는 황자(皇子)가 있으십니다.” 하였다. 이에 태감 회은(懷恩)이 고개를 숙이고 말하기를 “장민의 말이 옳습니다. 황자는 지금 서내에서 몰래 자라고 있고, 이미 6세가 되었습니다. 숨겨서 키웠기에 감히 아뢰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그날로 사신을 서내에 보내 황자를 맞이하였다. 사신들이 도착하자, 기씨는 황자를 안고 울면서 “아들아, 가거라. 나는 이제 못살겠구나. 아들이 황포를 입고 수염이 있는 분을 보이라, 바로 아버님이다.”라 했다. 황자가 작은 빨강색 도포를 입고, 작은 마차를 타고 가자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웅위하였고, 긴 머리는 땅에 닿았고, 황제의 품으로 달려갔다. 황제는 황자를 안아 무릎에 놓고 한참동안 어루만지며 희비가 교차하여 울며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나를 닮았구나!” 하였다. 그리고 회은을 내각에 보내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하였다. 군신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다음날 조정에 올라 축하하고 천하에 알렸다. 기씨의 거처를 영수궁(永壽宮)으로 옮기고 자주 보았다. 만귀비는 밤낮으로 울며 말하기를, “이것들이 나를 속였구나.” 하였다. 그해 6월, 기씨는 병들어 죽었다. 어떤 이는 만귀비가 죽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스스로 목매 죽었다고 한다. 시호를 공각장희숙비(恭恪莊僖淑妃)로 추시하였다. 장민도 두려워하여 금을 삼켜 자살하였다. 장민은 동안(同安)사람이다.

효종이 황태자로 즉위하였을 당시 효숙황태후가 인수궁(仁壽宮)에 거하였는

데 황제에게 “아이를 저에게 맡기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태자는 인수궁에 있게 되었다. 하루는, 만귀비가 태자를 불러 음식을 먹이려 하자 효숙황태후가 태자에게 말하기를, “아가야. 거기 가서는 음식은 먹지 말거라.” 하였다. 태자가 도착하자 만귀비가 음식을 주었으나 태자는 “이미 배가 부릅니다.” 라고 했다. 만귀비가 또 탕을 주니 태자는 “독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고 했다. 만귀비가 대노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가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이리하니, 뒷날 나를 잡아먹겠구나” 하고 분노하여 병을 얻었다.

孝穆紀太后, 孝宗生母也, 賀縣人。本蠻土官女。成化中征蠻, 俘入掖庭, 授女史, 警敏通文字, 命守內藏。時萬貴妃專寵而妬, 後宮有娠者皆治使墮。柏賢妃生悼恭太子, 亦爲所害。帝偶行內藏, 應對稱旨, 悅, 幸之, 遂有身。萬貴妃知而恚甚, 令婢鉤治之。婢謬報曰病瘵。乃謫居安樂堂。久之, 生孝宗, 使門監張敏溺焉。敏驚曰: 「上未有子, 奈何棄之。」稍哺粉餌飴蜜, 藏之他室, 貴妃日伺無所得。至五六歲, 未敢剪胎髮。時吳后廢居西內, 近安樂堂, 密知其事, 往來哺養, 帝不知也。帝自悼恭太子薨後, 久無嗣, 中外皆以爲憂。成化十一年, 帝召張敏櫛髮, 照鏡嘆曰: 「老將至而無子。」敏伏地曰: 「死罪, 萬歲已有子也。」帝愕然, 問安在。對曰: 「奴言卽死, 萬歲當爲皇子主。」於是太監懷恩頓首曰: 「敏言是。皇子潛養西內, 今已六歲矣, 匿不敢聞。」帝大喜, 卽日幸西內, 遣使往迎皇子。使至, 妃抱皇子泣曰: 「兒去, 吾不得生。兒見黃袍有鬚者, 卽兒父也。」衣以小緋袍, 乘小輿, 擁至階下, 髮披地, 走投帝懷。帝置之膝, 撫視久之, 悲喜泣下曰: 「我子也, 類我。」使懷恩赴內閣具道其故, 羣臣皆大喜。明日, 入賀, 頒詔天下。移妃居永壽宮, 數召見。萬貴妃日夜怨泣曰: 「羣小給我。」其年六月, 妃暴薨。或曰貴妃致之死, 或曰自縊也。謚恭恪莊僖淑妃。敏懼, 亦吞金死。敏, 同安人。孝宗旣立爲皇太子, 時孝肅皇太后居仁壽宮, 語帝曰: 「以兒付我。」太子遂居仁壽。一日, 貴妃召太子食, 孝肅謂太子曰: 「兒去, 無食也。」太子至, 貴妃賜食, 曰: 「已飽。」進羹, 曰: 「疑有毒。」貴妃大恚曰: 「是兒數歲卽如是, 他日魚肉我矣。」因恚而成疾。 (『명사』 권113 「후비(后妃)」, <효목기태후(孝穆紀太后)><sup>7)</sup>)



② 공숙귀비만씨는 제성(諸城)사람이다. 4세에 액정(掖廷)에 들어가 순태후의 궁녀가 되었다. 자라서 동궁에서 헌종을 보살폈다. 헌종이 16세에 즉위할 때 만씨는 이미 35세였고, 기민하여 황제의 뜻을 잘 살폈다. 이에 황후 오씨를 중상 모략하여 폐위시켰고 육궁(六宮)은 황제를 침석에서 모시기 어려웠다. 황제가 매번 놀이를 하는 행사에서 만씨는 용복(戎服)을 입고 말을 타고 행렬 앞에 인도하였다. 성화2년 정월에 첫 황자를 낳아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중사를 보내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마침내 만씨를 귀비로 봉했다. 그러나 황자가 일찍 죽고, 만씨 또한 이때부터 다시 아이를 갖지 못했다.

당시에 황제가 이들이 아직 없어 조정 안팎으로 모두 걱정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후사를 잇기를 진언하였다. 급사중 이삼(李森), 위원(魏元), 어사 강영소(康永韶) 등이 계속 후사가 절실함을 진언하였다. 4년 가을에 혜성이 여러 차례 출현하였다. 대학사 팽시(彭時)와 상서 요섭(姚夔) 또한 진언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이것은 집안일이다. 짐이 스스로 알아서하겠다.” 하여 소용이 없었다. 만귀비는 더욱 교만하였다. 궁중 신하 중에 뜻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질책을 당하여 쫓겨났다. 액정에서 황제의 신임을 받아 임신한 궁녀가 있으면 약을 먹여 낙태시켰다. 효종이 태어날 때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많이 없었는데 어떤 이는 만귀비가 넣은 약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숙비의 죽음도 사실은 만귀비의 소행이다. 아첨하는 전능(錢能), 담근(覃勤), 왕직(汪直), 양방(梁芳), 위흥(韋興) 등의 무리들은 공물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가렴주구하여 부고(府庫)를 탕진 하면서 만귀비의 환심을 사려 하였다. 기이하고 음란하게 사원에 제사지내며 낭비한 돈이 헤아릴 수 없었다. 오랜 후에 황제의 후궁이 자식을 점차로 많이 낳았다. 양방 등은 태자가 자라는 것이 두려웠다. 그가 제위에 올라 장차 자신의 죄를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만귀비와 공모하여 황제가 태자를 다시 바꾸도록 권하였다. 때마침 태산에 지진이 일어나 점치는 이가 말하기를 지진이 동궁의 폐위와 관련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황제가 두려워하였으며 사건은 잠잠해졌다.

7)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明史』 권113, 『漢籍電子文獻資料庫』,  
http://hanchi.ihp.sinica.edu.tw/ihpc/hanjiquery.

만귀비가 23년 봄에 급병으로 죽자, 황제 또한 7일 동안 조정을 돌보지 않았다. 만귀비의 시호를 공숙단신영정황귀비(恭肅端愼榮靖皇貴妃)라 하였고, 천수산에 묻었다. 홍치(弘治) 초에 어사 조린(曹璘)은 만귀비의 시호를 삭제하기를 건의하였다. 어대현(魚臺縣) 승상 서욱(徐頊)은 기대후를 진찰한 어의를 잡기를 청하고, 만귀비 가족들을 붙잡아 기대후가 죽을 당시의 상황을 심문하였다. 효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선제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 여겨 멈추었다.

恭肅貴妃萬氏，諸城人。四歲選入掖廷，爲孫太后宮女。及長，侍憲宗於東宮。憲宗年十六卽位，妃已三十有五，機警，善迎帝意，遂讒廢皇后吳氏，六宮希得進御。帝每遊幸，妃戎服前驅。成化二年正月生皇第一子，帝大喜，遣中使祀諸山川，遂封貴妃。皇子未期薨，妃亦自是不復娠矣。當是時，帝未有子，中外以爲憂，言者每請溥恩澤以廣繼嗣。給事中李森、魏元，御史康永韶等先後言尤切。四年秋，彗星屢見。大學士彭時、尙書姚夔亦以爲言。帝曰：「內事也，朕自主之。」然不能用。妃益驕。中官用事者，一忤意，立見斥逐。掖廷御幸有身，飲藥傷墜者無數。孝宗之生，頂寸許無髮，或曰藥所中也。紀淑妃之死，實妃爲之。佞倖錢能、覃勤、汪直、梁芳、韋興輩皆假貢獻，苛斂民財，傾竭府庫，以結貴妃歡。奇技淫巧，禱祠宮觀，糜費無算。久之，帝後宮生子漸多，芳等懼太子年長，他日立，將治己罪，同導妃勸帝易儲。會泰山震，占者謂應在東宮。帝心懼，事乃寢。二十三年春，暴疾薨，帝輟朝七日。謚曰恭肅端愼榮靖皇貴妃，葬天壽山。弘治初，御史曹璘請削妃謚號。魚臺縣丞徐頊請逮治診視紀太后諸醫，捕萬氏家屬，究問當時薨狀。孝宗以重違先帝意，已之。

(『명사』 권113 「후비(后妃)」, 공숙귀비만씨(恭肅貴妃萬氏))<sup>8)</sup>

①은 효종의 생모 효목기태후에 대한 기록이고 ②는 공숙귀비만씨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①은 기대후의 내력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만귀비

8)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明史』 권113, 『漢籍電子文獻資料庫』,  
http://hanchi.ihp.sinica.edu.tw/ihpc/hanjiquery.

의 질투와 악행, 기태후의 효종 출산과 효종의 성장, 태자 책봉, 만귀비의 태자 독살 시도, 만귀비의 죽음을 서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는 현종의 만귀비 총애, 만귀비의 질투와 악행, 만귀비와 간신들의 공모로 태자 제거 시도와 실패, 만귀비의 죽음을 서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명사』의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는 현종의 두 아내를 서술하고 있지만 이 역사적 기록을 합치면 현종, 만귀비와 기태후, 효종을 둘러싼 파란 만장한 한편의 이야기 구조로 정리해볼 수 있다.

- ① 후궁 만귀비는 기만하여 현종의 뜻을 잘 살피고 현종의 총애를 받는다.
- ② 만귀비는 황후 오씨를 중상 모략하여 폐위시킨다.
- ③ 만귀비는 황자를 낳지만 황자는 일찍 죽고 그 이후부터는 임신할 수 없다.
- ④ 만귀비는 후궁 중에 현종의 아이를 임신한 이가 있으면 낙태를 시켰다.
- ⑤ 후궁 중 기씨는 황제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 ⑥ 만귀비가 이를 알고 기씨의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했으나 궁녀들의 도움으로 기씨는 아이를 출산한다.
- ⑦ 기씨는 만귀비가 두려워 아이를 익사시키려고 했지만 문감 장민이 아이를 몰래 숨겨 키운다.
- ⑧ 폐위되었던 오황후가 이를 알고 아이를 키운다.
- ⑨ 황제가 자식이 없는 것을 슬퍼하자 장민이 황제에게도 숨겨둔 아들이 있다고 말해준다.
- ⑩ 황제는 황자를 데리고 와 태자로 삼고 기씨도 영수궁으로 옮긴다.
- ⑪ 만귀비는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분통해한다.
- ⑫ 기씨는 만귀비의 소행으로 죽게 되고, 장민도 만귀비가 두려워 금을 삼키고 자살한다.

- ⑬ 효숙황태후는 태자를 지키기 위해 인수궁에서 태자를 키운다.
- ⑭ 만귀비가 태자를 해치기 위해 부르자 효숙황태후는 만귀비가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한다.
- ⑮ 만귀비가 음식을 주자 태자는 거절하며 받아먹지 않는다.
- ⑯ 간신 전능, 담근, 왕직, 양방, 위홍 등이 가림주구하고 부고를 탕진하면서 만귀비의 환심을 산다.
- ⑰ 이들은 태자가 제위에 올라 자신들의 잘못을 다스릴 것이 두려워 만귀비와 공모하여 태자를 폐위하도록 황제에게 권한다.
- ⑱ 태산에 지진이 일어나자 점치는 자가 동궁 폐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자 황제는 태자 폐위를 그만 둔다.
- ⑲ 만귀비가 급병으로 죽자 황제 또한 7일 동안 조정을 돌보지 않고 슬퍼한다.
- ⑳ 효종이 즉위하자 조정 신하들은 만귀비의 시호를 삭제하자고 하고 기태후를 진찰한 어의와 만귀비 가족들을 붙잡아 기태후의 죽음을 심문한다.
- ㉑ 효종은 이 일은 선제의 뜻을 어기는 것이므로 멈추게 한다.

이처럼 『명사』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는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의 서사로 요약할 수 있다. 현종의 후궁으로 들어간 만귀비는 현종보다 19살이나 연상이지만 기민하여 현종의 뜻을 잘 읽고 현종의 총애를 받는다. 만귀비는 황후 오씨를 중상 모략하여 폐위시키고 현종의 총애를 받아 임신한 후궁이 있다면 약을 먹여 아이를 낙태시키는 투기를 일삼는다. 또한 만귀비는 자기 뜻을 어기는 신하를 내쫓고, 아부하는 간신들과 함께 국고를 낭비하기도 한다. 기씨를 독살하고 음식에 독을 넣어 태자를 죽이려는 악행을 저지른다. 간신들과 공모하여 태자를 폐위시키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으로 『명사』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는 효종의 고난의 서사로도 읽을 수 있다.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 때문에 기씨는 낙태의 위협을 받고 주변의 도움으로 효종을 낳는다. 그러나 기씨는 서슬 퍼런 만귀비가 두려워 효종을 죽이려고 하지만 장민과 폐위된 오황후는 효종을 몰래 숨기고 기르게 된다. 효종은 6세가 되어서야 아버지 현종을 만나게 되고 황태자로 즉위한다. 그러나 만귀비는 효종을 죽이기 위해 마수를 뻗지만 효숙황태후는 자기의 처소인 인수궁에서 효종을 키우며 만귀비에게서 효종을 보호한다. 만귀비는 효종을 불러 독약을 넣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지만 효종은 배가 부르다고 하고, 독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며 음식을 먹지 않고 위기를 모면한다. 간신들과 만귀비는 현종에게 태자를 폐위시키라고 충동질한다. 때마침 태산에서 지진이 일어나자 하늘이 태자를 폐위시키는 것에 노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현종은 두려워 태자의 폐위를 멈춘다. 만귀비가 죽고 뒤이어 현종이 죽자 효종은 명나라 9대 왕인 성치제로 즉위하게 되는 것이다.

『명사』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는 현종의 두 명의 부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지만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의 서사이면서 효종의 고난의 서사라는 구조를 지닌다. 효종의 생모와 만귀비에 대한 기록은 『명사』 이전에 명나라 심덕부(1578-1642)가 편찬한 『만력야획편(萬曆野獲編)』 권3, 「궁위(宮闈)」의 <효종생모>, <만귀비>에 먼저 기록되어 있다. 『만력야획편(萬曆野獲編)』은 명초부터 만력 말까지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필기류로 정사가 아닌 야사류(野史類)<sup>9)</sup>이다. 특징적인 것은 『만력야획편』의 <효종생모>에서는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은 거의

9) 이승신·채수민·송정화, 「<만력야획편·사인> 번역 및 주석, 『중국어문논총』 79권, 중국어문연구회, 2017, 401~402쪽.

서술되지 않고 효종의 출생과 만귀비가 효종을 양육한 사실, 만귀비에 대한 잘못된 기록을 해명하고 있고, <만귀비>에는 만귀비의 투기만 간단히 서술하는 정도로 되어 있다. 『만력야획편』에서는 만귀비를 투기와 악행의 화신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청나라 장정옥(1672-1755)이 완성한 정사인 『명사』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에서부터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 효종의 고난이 한 편의 서사를 읽는 것처럼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청나라 문용빈(1821-1893)이 편찬한 명나라 일대의 전고(典故)를 수록한 책인 『명회요(明會要)』 권2 『태황태후·황태후·황후』에도 기태후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명회요(明會要)』의 『태황태후·황태후·황후』는 『명사』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를 선행 텍스트로 하여 만들어진 『명사』 요약본이지만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 효종의 출생 경위는 『명사』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문학 텍스트인 우리의 고전소설에서도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의 서사, 효종의 고난의 서사가 소설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 텍스트인 『명사』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가 고전소설에서 재구성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이 텍스트가 지닌 강한 서사성과 만귀비의 강한 캐릭터가 고전소설 작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고전소설의 서사 구성과 인물 구성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 3. 고전소설의 명사의 소설적 재현과 인물 구성

#### 1) 남녀 주인공의 고난 강화적 서사 프레임 구성-〈류황후전〉

『명사』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에서 서술되는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의 서사, 효종의 고난의 서사는 고전소설 <류황후전>에서는 남

녀 주인공의 고난 강화적 서사 프레임으로 재구성된다. <류황후전>은 선행 텍스트인 『명사』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의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 효종의 고난이라는 서사 뼈대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효종의 고난의 서사를 <류황후전>의 남녀 주인공인 유태아, 태자의 고난의 서사로 재구성하여 재현하고 있다.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의 서사적 틀은 『명사』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지만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은 세부적으로 유태아와 태자의 결연을 방해하고 남녀의 진정한 결합을 지연시키는 서사 프레임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류황후전>에서 만귀비는 간교하고 교언영색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정궁과 후궁, 태자와 태자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간악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③ 상이 만귀비를 총행하시니 만귀비의 위인이 간음사특해야 지족이 거간이 오 언족이 식비하는지라 교언령생으로 성총을 가리오고 덩궁을 식기하니 상이 본래 정궁을 경중하시는데고로 만귀비 자로 참소하나 종시 맞지 아니하시더라  
(<류황후전> 11면)

만귀비 류비의 총행을 밧음이 날로 김품을 보고 내심에 불열하여 모해할 계 획을 생각하더니  
(<류황후전> 21면)

턴자| 호부시랑 덩운의 너아| 재덕용모가 진세에 특출함을 들으시고 전지 하사 후궁으로 빼이시니 방년이 이팔이오 선연한 태도| 후궁에 웃듬일 썩더러 성질이 온순 정직한지라 상이 아름다히 녀이샤 첩여를 봉하시니 만귀비 식기하 야 류비와 덩첩여를 모해코지하더라  
(<류황후전> 21면)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류황후전>의 만귀비는 정궁을 시기하여 참소하고, 태자비인 유태아가 황제의 총애를 받으니 모해할 계획을 세우며, 후궁인 정첩여가 황제의 사랑을 받자 정첩여도 없앨 계교를

세운다. <류황후전>의 만귀비의 인물 자질과 형상화는 『명사』의 만귀비의 인물 자질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러나 <류황후전>에서 만귀비가 행하는 투기와 악행, 유태아와 태자에게 가하는 고난은 보다 강화된 형태로 재구성된다. <류황후전>에서 재구성되는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 그리고 유태아와 태자의 고난의 서사 양상은 다음처럼 정리해볼 수 있다.

- ① 만귀비는 황상의 총애를 받고 그의 오빠 만풍경은 조정 권세를 잡아 현인을 모해하고 성충을 가린다.
- ② 만풍경은 유태아의 재명과 용화를 듣고 며느리로 삼고자 매과를 보내나 유태아의 아버지 유량이 단호히 거절한다.
- ③ 만풍경은 이에 앙심을 품고 안남국이 변방에 쳐들어오자 변방을 평정하는 위무사로 유량을 천거하여 보낸다.
- ④ 유량이 집을 비우자 만풍경은 유태아를 데리고 가기 위해 유가에 쳐들어가지만 유태아가 가짜 빈소를 만들어 죽은 것처럼 하여 집안 깊은 곳에 숨고 위기를 모면한다.
- ⑤ 정궁이 아들 창을 낳자 황상은 창을 사랑하여 태자로 삼자 만귀비는 시기한다.
- ⑥ 태자는 병이 생겨 영안궁에 피접갔다가 우연히 유태아를 만나 미모에 반하고 주소저로 변장하여 관음사에서 유태아를 다시 만나 유태아의 사람됨을 알고 황상에게 혼인을 허락받는다.
- ⑦ 만귀비는 자신의 조카 만소저가 태자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다 일이 여의치 않자 유태아를 해칠 것을 결심한다.
- ⑧ 만귀비는 호부시랑 정운의 딸이 재덕과 용모가 뛰어나 후궁으로 뽑히고 황상의 총애를 받아 정첩여로 봉해지자 정첩여도 시기하여 제거하려고 한다.



- ⑨ 만귀비는 유태아에게 비단을 주며 황상의 용포를 지으라고 하고 황상에게는 유태아가 역심을 품고 태자의 용포를 짓는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황상의 분노를 산다.
- ⑩ 만귀비는 정첩여와 태자를 함께 엮어 없애기 위해 정첩여와 태자가 다정히 바둑을 두고 있으며, 황상이 불러도 태자가 정첩여의 품에서 잠이 들어 못 온다고 거짓으로 전하게 하여 황상의 의심과 분노를 일으킨다.
- ⑪ 만귀비가 아들을 낳고 홀연 아들이 병으로 죽자 만귀비는 죽은 아들의 입속에 독약을 넣은 후 만귀비의 사주를 받은 유태아의 시비들이 유태아가 시킨 것이라고 자백한다.
- ⑫ 황상은 이를 그대로 믿고 만삭인 유태아를 영양궁에 가두고 아이를 낳으면 유태아를 죽이라고 명한다.
- ⑬ 유태아가 아이를 낳자 황상은 유태아를 죽이라고 하고 태자의 부탁을 받은 태감 강문창이 피를 내어 유태아를 피신시키고 황상에게 유태아가 죽었다고 보고한다.
- ⑭ 황상은 만귀비의 간언으로 만풍경의 딸 만소저를 태자비로 다시 들이지만 만소저는 미모에 비해 간악하여 태자는 만소저를 소원하게 대하고 만소저는 앙심을 품는다.
- ⑮ 태자가 유태아가 남긴 편지를 보고 슬퍼하고 궁궐로 돌아와 유태아를 그리워하는 글을 짓고 만소저가 이것을 보고 분노하여 만귀비에게 보인다.
- ⑯ 만귀비는 정첩여의 글씨를 모방하여 태자를 사모하는 편지를 지어 태자의 글과 함께 황상에게 보이니 황상은 태자와 정첩여가 간통했다고 생각하여 정첩여는 강도궁에 가두고 태자는 폐궁에 거하게 한다.
- ⑰ 유태아의 시비 유소애가 계교를 내어 궁궐로 들어가 황상의 총애를

받아 속의 직첩을 받고 만귀비의 간계를 말한다.

- ⑱ 황상은 유소애의 말을 듣고 유태아의 시비 교란 등을 국문하고 만귀비의 궁과 만풍경의 집을 수색하여 만귀비가 그간 저지른 악행을 알게 된다.
- ⑲ 황상은 태자를 불러 자신의 혼암불명함을 후회하고 만귀비와 그 일족을 참하라고 하자 태자는 만귀비는 죄를 감하라고 주청하여 만귀비는 죽이지 않고 남해에 정배시킨다.
- ⑳ 유태아와 태자는 상봉하고 황상은 태자에게 보위를 양위하고 태자는 황제로 등극하여 나라를 잘 다스린다.

이처럼 만귀비는 <류황후전>의 핵심적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 유발자이다. 만귀비를 중심으로 만귀비의 오라비 만풍경과 만풍경의 딸 만씨가 합세하여 유태아와 태자의 고난을 가중시키고 유태아와 태자의 결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유태아의 혼사 전 고난은 만귀비의 권세를 낀 만풍경의 구혼을 유량이 거절하면서 시작되지만 본격적 고난은 유태아와 태자가 혼인하면서 시작된다.

만귀비는 정궁과 태자에 대한 시기심과 황상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 유태아에 대한 미움으로 유태아와 태자를 모해하는 계락을 펼치고 만귀비의 말을 믿는 황상은 유태아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려 한다. 만귀비의 계략에 빠져 황상은 태자와 정첩여 사이를 의심하여 이들에게도 벌을 내린다. 태자가 정첩여와 간통했다는 의심을 받고 폐궁에 갇히는 벌을 받지만 유태아가 받는 고난은 태자보다 훨씬 심각하다. 유태아는 만귀비의 아들을 독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폐궁에 갇히고 아들을 출산한 후 사약을 받아 죽을 위기를 겪기 때문이다. 태자의 부탁을 받은 태감 강문창이 사약을 가지고 온 여희진을 설득하여 유태아를 동교 암실에 피신하게 하여 유태

이는 목숨을 건진다. 유태아는 아이를 키우다 만귀비가 낚새를 쫓아 두려워 다시 장사로 떠나 이원충의 집에 의탁하게 된다. 만귀비의 시기와 악행은 유태아의 고난을 점층적으로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유태아의 고난담은 『명사』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의 태자의 고난담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 효종의 생모 기태후가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만귀비가 두려워 아이를 익사키시라고 하자 태감 장민이 아이를 몰래 키우고 기태후를 보호한 것처럼 <류황후전>의 유태아도 황상이 사약을 내리자 태감 강문창과 여회진이 유태아가 죽었다고 거짓으로 고하고 유태아와 아이를 동교 암실에 두고 살리는 모티프는 <류황후전>이 『명사』를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류황후전>의 유태아와 태자에게 가해지는 고난의 내용과 강도는 『명사』의 효종보다 더욱 강하다. 만귀비는 태자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역심을 가졌다고 황상을 자극하고 태자비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 모략하기도 하고 태자가 왕의 후궁과 간통했다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황상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유태아를 죽이고 태자는 폐위시키려고 한다. 만귀비의 이와 같은 투기와 악행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추악한 악과 욕망을 적나라하게 펼치는 음모의 구조이자 소설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사』의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 효종의 고난의 서사는 <류황후전>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역심과 역모, 근친살해와 근친상간을 행하려고 했다는 보다 자극적인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만귀비의 악행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금기시되는 역모, 근친살해와 근친상간과 같은 패륜을 남녀 주인공이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남녀 주인공에게 해를 가하지만 이것은 만귀비의 악행을 통해 현실적 금기 너머에 있는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는 통로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류황후전>의 유태아와 태자가 겪는 점층적 고난은 만귀비로 대변되는 악인형 여성인

물의 질투와 탐욕을 극대화하는 수단이자 악인형 여성 인물의 욕망을 드러내고 재현하는 소설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인형 여성 인물의 질투와 탐욕, 욕망을 재현하는 수단으로 선택되는 <류황후전>의 만귀비 서사도 역사와 다른 결말을 구성한다. 『명사』와 『만력야획편』의 역사적 기록에서 만귀비는 죽음을 맞는 파국을 보여주지만 <류황후전>은 만귀비의 질투와 악행을 심각하게 심판하지 않는다. <류황후전>에서는 만귀비의 악행이 발각되어도 만귀비의 죄를 죽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절도에 유배 보내는 정도의 처결을 보여준다.

④ 귀비의 죄 만사무척이오니 신의 연고로 죽사오면 신이 무산 면목으로 세상에 서오릿가 복걸 폐하난 세번 살피샤 신으로 하야곰 후세 죄명을 면케하소서 상이 태자의 말삼을 들으시고 아람다히 역이샤 다시 전교 왈 귀비의 죄 맛당히 주륙을 당할 것이로대 태자의 인효함을 특히 감사 정배하나니 남해 극변에 안치하라 하시고(<류황후전> 57면)

만귀비의 악행에 분노한 황상이 만귀비와 만비, 만풍경을 죽이라고 전교를 내리지만 태자는 황상에게 만귀비를 남해에 유배보낼 것을 부탁한다. 태자는 자신 때문에 만귀비가 죽으면 후세에 부끄러운 이름을 얻는다고 하며 만귀비에 대한 벌을 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태자의 어짙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만귀비를 죽여서는 안된다는 효심의 발로이기도 하다. 『명사』와 『만력야획편』에서 만귀비는 병으로 죽었다는 말로와는 달리 <류황후전>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만귀비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결말을 구성하는 것은 역사와는 다른 윤리적 시각이 고전소설에 투영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다음 항에서 살펴볼 <이씨효문록>, <유효공선행록>, <화문록>에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2) 새로운 악인형 여성 인물의 모방적 구성-〈이씨효문록〉

〈이씨효문록〉은 6권의 분량으로 되어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의 서사 구조로 이분화<sup>10)</sup>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전반부는 이명현과 유부인의 갈등, 이명현의 처첩 갈등이 주를 이루는데 만귀비의 서사적 재현은 〈이씨효문록〉의 전반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씨효문록〉에서 만귀비는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임금을 좌지우지하며 이명현과 이명현의 두 부인에게 고난을 가한다. 그러므로 〈이씨효문록〉에서도 만귀비는 가정내외적 갈등을 촉발하고 남녀 주인공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류황후전〉처럼 핵심적 갈등을 만드는 갈등의 유발자는 아니다. 〈이씨효문록〉에서 만귀비는 구체적 계략이나 음모를 꾸며 이명현과 두 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인 만씨의 요청에 의해 임금을 움직여 주인공에게 고난을 가하는 매개자의 역할만 할 뿐이다. 만귀비가 임금의 총애를 받고 정궁을 중상 모략하여 임금이 정궁을 폐위시키고 태자를 박대한다는 『명사』의 만귀비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씨효문록〉에는 만귀비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 형상이나 구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씨효문록〉에서 만귀비는 부차적 서사의 주변 인물에 그치고 『명사』의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을 주도하여 주인공에게 직접적으로 고난을 가하는 인물로 구체화되지는 않는다.

10) 전용문은 〈이씨효문록〉의 구성은 이명현을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과 명현의 아들인 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크게 양분된다고 하였다. 임치균은 〈이씨효문록〉의 세대를 구분하면 이문환-이명현을 전편으로, 이명현-이재회를 속편으로 나누어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김동욱도 〈이씨효문록〉은 전반부의 이명현의 서사와 후반부의 이재회의 서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전용문, 「〈이씨효문록〉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0, 한국언어문학회, 1998, 319쪽. 임치균, 「〈이씨효문록〉 연구」, 양포 이상택 교수 환력기념논총위원회 편, 『한국고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492쪽. 김동욱, 「〈이씨효문록〉의 ‘효’ 관련 서사와 다층적 서술의식 연구」, 『열상고전연구』 52, 열상고전연구회, 2016, 263~264쪽.

주목되는 것은 만귀비의 조카 만씨이다. 만씨는 <이씨효문록>에서 『명사』의 만귀비에 버금가는 투기와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형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씨효문록>에서 『명사』의 만귀비를 모방하여 새롭게 만든 악인형 인물은 만씨라고 할 수 있다.

만씨는 임금의 총애를 받는 만귀비의 오빠 만염의 막내딸이다. 만귀비가 임금의 총애를 받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자 오빠 만염 또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만염의 딸 만씨는 만귀비가 만승 천자의 배필이 된 것처럼 자신도 뛰어난 사람을 남편으로 삼겠다는 욕망을 가지게 된다.

⑤ 화설 황애 총희 만귀비는 즈식이 늑궁의 웃듬이오 총희이 궁니를 기우리니 초방 금실의 상의를 홀노 띄여 양양하여 외손권척을 써 묘정의 희를 무궁히 텃지 아디못히시더라 만국구 펼녀 이시니 옥안이 절식이오 만국귀 텃하 옥인지스를 어더 소녀의 빵을 삼으라홀시 스스로 뜻디 놓하 턱셔히미 미정히니 만쇼제 스스로 니르디 형은 만승 텃즈의 비필이 되어시니 소녀는 원컨디 구쥬에 독보한 현준은 썸기리라 하니 국귀 더욱 근심하더라

(<이씨효문록>2권 149-150면)

만씨에게 만귀비의 권세와 호화로운 삶은 선망의 대상이며 만씨는 만귀비와 같은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씨는 만귀비를 만나러 조정으로 갔다가 이명현을 보고 반해 상사병에 걸린다. 만씨는 만귀비를 통해 임금을 설득하여 이명현의 부인이 되려고 하지만 이명현은 이미 혼인하여 부인과 첩이 있다고 하면서 만씨와의 혼인을 거절한다. 이에 만귀비는 이명현의 양모인 유부인에게 임금이 내린 혼사를 거절하면 집안에 화란이 있을 것이라는 편지를 보내고 집안의 걱정을 염려한 이명현은 어쩔 수 없이 만씨를 두 번째 처로 맞아들인다. 혼인 후 만씨가 펼치는 투기와 악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신희 첫날 밤에 박대를 당한 만씨는 분노하며 유부인과 두 딸과 결탁하여 위씨의 원비 자리를 빼앗을 계교를 짠다.
- ② 만씨는 유부인에게 이명현이 자신을 박대한다고 하자 유부인은 이명현이 만씨 침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인을 시켜 이명현을 때린다.
- ③ 만씨는 위부인을 없애기 위해 이명현이 찬 칼을 뽑아 자해하면서 이명현과 위씨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울부짖고 유부인이 이명현과 위씨를 매로 다스린다.
- ④ 만씨는 만귀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만귀비와 만염은 이런 사단을 임금에게 알린다.
- ⑤ 임금은 이명현을 옥에 가두고 문초하여 월봉을 삭감하고 위씨는 원위에서 폐하여 장사로 정배보내고 만씨를 원비로 삼게 하고 빙염은 만씨의 천비로 삼게 한다.
- ⑥ 만씨는 유부인의 명으로 이명현이 자신의 처소로 찾아오지만 자신에게 냉랭하자 빙염을 죽일 계교를 낸다.
- ⑦ 만씨는 창두를 시켜 빙염을 쇠사슬로 묶어 강물에 던져 죽이려 하자 이명현의 동생 이경현이 구출하여 빙염을 자기 부인에게 보낸다.
- ⑧ 만씨는 자객을 보내어 정배가는 위씨를 죽이려고 하지만 위씨는 위기를 모면하고 장사 태수에게 의탁한다.
- ⑨ 빙염이 서후의 딸임이 밝혀지고 이명현이 빙염을 정실로 맞이들이자 만씨는 질투로 분하고 원통해한다.
- ⑩ 만씨는 유부인과 영설 등과 짜고 벽에 요사한 축사를 써서 유부인이 병이 든 것처럼 하고 빙염이 축사를 쓴 것처럼 꾸미고 유부인은 빙염의 죄를 물어 매로 다스리고 후당에 감금시킨다.
- ⑪ 빙염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자 유부인은 빙염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빙염은 친정 아버지의 신약으로 살아난다.

- ⑫ 임금이 정궁을 폐하고 태자를 박대하자 이명현은 만귀비와 만염의 잘못을 상소하다 오히려 형벌을 받게 되고 역남국변으로 정배가게 된다.
- ⑬ 만씨와 유부인, 영설 등이 이명현이 사라지자 재산을 차지하려고 이명현의 세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아들들은 이명현이 남긴 글을 보고 빙염의 집으로 피신한다.
- ⑭ 영설이 이부의 권력을 잡자 유부인과 만씨는 무용지물이 된다.
- ⑮ 임금이 죽고 태자가 즉위하여 만씨의 삼족을 멸하고 그 화가 만씨에게까지 미치나 만씨는 이명현이 돌아와 처결하라고 한다.
- ⑯ 만씨는 다급해지자 이부의 재산을 정리하여 사통한 노비와 도망간다.
- ⑰ 이명현이 돌아와 병든 유부인을 간호하고 빙염을 데리고 오고 도망갔던 만씨가 거지가 되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만씨를 이부로 잡아와 처형한다.

신혼 첫날밤 이명현이 신방에 들어와서는 말도 건네지 않고 잠만 자고 나가자 만씨는 이에 분노하여 이명현과 위씨, 서빙염을 없앨 생각을 하게 된다. 만씨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 양자로 들어와 모든 재산이 이명현에게 돌아갈 것을 못마땅해하던 시어머니 유부인과 시누 영설 등과 결탁하여 이명현과 위씨를 모해하고 첩인 서빙염까지 죽이려는 계락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이씨효문록>의 전반부의 핵심 갈등은 양모 유부인과 양자 이명현의 갈등인데 만씨가 이명현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면서 이명현과 유부인의 갈등 양상은 더욱 첨예하게 된다. 이명현이 집안을 비우자 이명현의 아들을 살해하려는 영설의 계획에도 공모한다. 만씨는 집안 내부에서는 유부인과 영설 등과 공모하고, 밖으로는 만귀비의 원조로 이명현과 위씨에게 고난을 가하는 <이씨효문록>의 전반부 갈등의 핵심적 유발자이다.



『명사』의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의 서사는 <이씨효문록>에서는 만귀비의 서사로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귀비의 조카 만씨라는 인물을 새롭게 구성하여 만씨가 펼치는 투기와 악행의 서사로 재구성되고 있다. 만씨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배필을 구하여 남편으로 삼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만씨는 이명현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배필로 생각하고 만염과 만귀비를 동원하여 이명현의 아내가 된다. 그러나 이명현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자 그 분노는 이명현과 위씨와 채빙에게로 향한다. 만씨가 펼치는 투기와 악행은 남편을 죽이고, 연적을 제거하며, 남편의 아이들을 살해하고, 재물을 훔쳐 다른 남자와 사통하는 것이다. 만씨의 이와 같은 투기와 악행은 현실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범법적 행위이다. <이씨효문록>에서 만씨는 자신의 권력 욕망, 애정 욕망, 성적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자 분노와 투기, 악행의 서사를 펼쳐보이고 있고 <이씨효문록>은 만씨라는 악인형 여성인물을 창조하여 적나라한 욕망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씨효문록>의 만씨는 『명사』의 만귀비의 인물 자질에서 촉발되어 이와 유사한 인물 자질을 소설 속에 구성하려는 서사 충동에서 만들어진 인물이다. 『명사』의 만귀비는 권력 욕망, 애정 욕망에 따라 투기와 악행을 저질렀다면 만씨는 권력 욕망, 애정 욕망, 성적 욕망에 따라 투기와 악행을 행하고 성적 일탈을 하는 인물로 구성하였다. 만씨는 『명사』의 만귀비가 가진 투기와 악행의 자질은 그대로 반복하고 애정 욕망과 성적 욕망은 더욱 붙여넣어 새로운 악인형 여성 인물로 창조되었다. 이러한 만씨와 같은 인물 구성은 이명현의 지극한 효성으로 모든 갈등이 해결된다는 <이씨효문록>의 유교적 주제에서 일탈하여 만씨를 통해 악과 욕망을 유희적으로 펼치고 여성 욕망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여성 욕망의 극대화는 현실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만씨는 처형

되는 말로를 맞게 되지만 만씨는 『명사』의 만귀비의 인물 자질을 모방하여 <이씨효문록>에서 악과 욕망을 재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악과 욕망을 펼친 만씨는 <이씨효문록>에서 이명현에게 잡혀와 처형당하는 결말을 맞지만 임금을 기만하고 권력을 휘둘렀던 만귀비는 극형을 내리거나 유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궁에 안치하는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다.

⑥ 임의 황태 봉하시○○ 태지 위에 나아가시니 시위 흥치 황태라 선제의 유교를 밋드니 찬출흔 직신는 덩소흐실시 익미히 원력흐였던 죄슈 빅여인이다라 상이 만시의 삼죽은 멀흐시고 란신은 죽여난 후의 혼은 설흐시고 역모의 흥흔 거술 시스시디 만귀비로써 선도의 총인흐시던 비나흐사 복궁의 안치흐야 인명은 샴하시니 성덕은 도애 즈복흐더라 (<이씨효문록>3권 493~494면)

임금은 죽으면서 만귀비와 간신들에게 현혹당한 자신의 잘못을 말하며 이들을 벌 줄 것을 명한다. 그러나 태지는 흥치제로 즉위하여 만씨의 삼죽은 멀하지만 만귀비는 죽이지 않는다. 만귀비는 선제가 총애하던 후궁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복궁에 안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이 때문에 흥치제의 성덕이 높이 평가되고 조정과 재야가 칭송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류황후전>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만귀비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결말과 유사하며 <이씨효문록>에서도 <류황후전>과 유사한 윤리적 시각이 작동하여 만귀비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3) 핵심 서사와 부차적 서사의 상동적 프레임 구성

-<유효공선행록>, <화문록>

<유효공선행록>은 지극한 효성과 우애를 가진 유연과 편벽되고 어리

석은 아버지 유정경을 좌지우지하여 형 유연의 장자 자리를 빼앗으려는 간사하고 시기심 많은 아우 유홍의 갈등이 중심이 되고 유연의 지극한 효우의식이 아버지와 아우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국문장편소설이다.

<유효공선행록>에서 만귀비의 서사는 유홍의 간계에 의해 유연이 만귀비의 잘못을 상소하고 유배를 가게 되는 유연의 고난과 관련된다. 유홍은 집에서는 사리에 밝지 않고 어리석은 아버지를 속이고 갖은 흉계를 꾸며 유연을 고난에 빠트리고 집밖에서는 만귀비를 총애하는 임금의 분노를 일으켜 유연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공선행록>에서는 부차적 서사인 태자의 서사에서 만귀비의 서사를 본격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태자의 서사는 『명사』의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 효종의 고난의 서사를 모방하여 재현하고 있는데, 태자의 서사는 <유효공선행록>에서 부차적인 서사로 기능한다. 태자의 서사는 핵심적 서사인 유연의 고난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효공선행록>에서는 부차적 서사인 태자의 서사에서 만귀비의 서사가 집중적으로 재현되어 있지만 핵심적 서사인 유연의 서사는 태자의 서사와 일정한 상동성을 지닌 채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유연의 서사와 태자의 서사를 정리한 것<sup>11)</sup>이다.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의 서사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
① 간사하고 교활한 유홍은 요정에게 뇌물을 받은 일과 형수인 정씨의 아름다움을 시기하여 지은 거짓 가사가 유연에게 탄로날까봐 어리석은 아버지 유정경에게 유연의 죄를 거짓으로 고해 유연을 모함함. ② 유홍은 온갖 흉계로 유연을 해치려고 하고	① 태자는 나이가 어리지만 성숙하고 영민함. ② 천자가 후궁 만귀비를 총애하자 만귀비는 황후를 참소하고 천자는 황후를 폐하고 태자를 박대하며 만나지 않음. ③ 만귀비가 다시 천자에게 태자를 참소하자 천자는 태자를 조주로 순행하게 함.

11) 필자는 <유효공선행록>을 대상으로 다층적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과 독서 과정을 연구하면서 효우담으로서의 유연의 서사와 성군담으로서의 태자의 서사를 정리했는데 선행 연구 내용의 일부분을 활용하기로 한다. 김문희(2015), 앞의 논문, 217~227쪽.

<p>유정경은 적장자 자리에서 유연을 폐하여 유흥을 적장자로 삼고 유연과 정씨를 취설각에 유폐시킴.</p> <p>③ 유흥은 간계를 부려 요정, 만엽과 협동하여 유연이 과거를 보게 하고 유연이 장원으로 뽑히는 날 천자 앞에서 유연의 죄상을 말함. 유정서와 유씨 종족, 태자의 변호로 유연이 위기를 모면함.</p> <p>④ 천자가 후궁 만귀비를 총애하여 황후를 폐하고 태자를 박대하자 유흥은 흥계를 내어 유연이 천자에게 상소를 올리게 함.</p> <p>⑤ 천자는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유연에게 분노하여 수 십 대를 치고 유배보냄.</p> <p>⑥ 유흥은 유배지로 향하는 유연을 죽이기 위해 하인을 매수하기도 하고 유정경을 부추겨 유연에게 칼과 편지를 보내어 자결하라고 함.</p> <p>⑦ 유정경은 우연히 초서당에서 유흥의 악행과 관련된 편지를 보고 60대의 매로 유흥을 다스리고 유정경은 유연에게 편지를 보냄. 유흥은 중간에서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편지로 바꾸어 버림.</p> <p>⑧ 태자가 왕위에 오르고 만귀비 일파와 유흥의 죄상이 밝혀지고 유흥은 유배를 가게 됨. 유배지에서 돌아온 유연은 효성으로 유정경을 모시고 10년만에 유배지에서 돌아온 유흥을 우애로 대하고 유흥은 개과함.</p>	<p>④ 황후는 천자의 박대와 만귀비의 간악한 참소가 심해지고, 심궁에 갇혀 태자를 만나지 못하자 병이 들어 죽게 됨.</p> <p>⑤ 황후의 죽음을 알게 된 태자는 궁궐로 돌아와 임종을 받들지 못한 것을 밤낮으로 슬퍼하고 천자가 태자를 위로함.</p> <p>⑥ 천자가 갑자기 병을 얻어 죽음을 맞음.</p> <p>⑦ 태자가 즉위하여 개원을 흥치 원년으로 하고 흥치제가 됨.</p> <p>⑧ 만귀비는 천자를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발각되고 천자는 만엽과 만귀비의 삼족을 멸하고 만귀비 일파를 죽이거나 죄를 줌.</p> <p>⑨ 천자는 만귀비는 선제가 총애하던 비(妃)라 죽이지 않고 복궐의 심궁에 가둠.</p> <p>⑩ 천자는 간악한 신하를 폐하고 정관, 정서, 유연 등의 신하를 가까이 두고 천하의 인재를 등용함.</p> <p>⑪ 천자는 검소하고 소박한 것을 숭상하고 후비가 사치하지 않도록 하여 아름다운 덕과 밝은 정사를 펼.</p>
--	--

태자의 서사는 만귀비의 서사와 명 효종의 고난의 서사, 성군담 등 『명사』에 기반하여 재현한 것이다. 그런데 <유효공선행록>의 핵심 서사인 유연의 서사도 태자의 서사와 유사한 구성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귀비에게 현혹되어 만귀비의 참소를 믿고 황후를 폐하고 태자를 박대하는 임금의 어리석음에서 기인하는 태자의 고난은 시기심 많고 간악한 아들 유흥의 참소와 계략에 빠져 유연을 박대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유정경의 어리석음에서 기인하는 유연의 고난의 서사와 상동적인 것이다. 태자의 서사가 후궁의 참소가 원인이 되고, 유연의 서사가 간악한 작은 아들의 참소가 원인이 된다는 것이 다르지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

고 암혼한 아버지와 임금의 잘못된 판단이 아들에게 고난을 가한다는 점이 동질적인 것이다.

이점은 태자가 만귀비의 참소로 조주로 순행갔다 유배지에서 유연을 만나 서로 위로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유배지에서 유연이 병이 들어 정신을 잃고 누워있을 때 태자는 유연을 찾아가 유연의 방에서 유흥이 거 짓으로 쓴 유정경의 편지를 보고 큰 소리로 분노한다. 유연이 정신을 차 리자 태자는 자기의 정체를 알리고 유연을 위로해준다. 태자는 또한 조정 의 일을 언급하다가 천자가 자기를 박대하는 뜻과 자기를 외지로 내친 것 을 말하며 눈물을 흘리자 유연은 순임금을 빗대어 천자를 원망하던 태자 를 깨우치고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태자와 유연은 서로의 처지를 위로 하며 며칠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유연과 태자의 처지가 비슷하고 동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sup>12)</sup>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의 서사와 태자의 서사는 어리석은 아버지 혹은 천자가 간악한 아들 혹은 후궁의 계략에 빠져 효우관인한 아 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상동적 구성을 보여준다. <유효공선행록> 에서 『명사』의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 효종의 고난의 서사를 부차적 서사 로 만들어 핵심 서사와 상동적인 의미를 지니도록 구성하는 것은 어리석 은 가부장과 임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유효공선행록>은 『명사』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현종의 무력함과 암혼함을 재해석 하여 핵심 서사와 조응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한편 <유효공선행록>에서도 만귀비에 대한 처벌은 그 악행에 비해 관

12) 박일용은 유연의 서사는 우순 효행담과 상동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우순 효행담에서 는 효행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지만 <유효공선행록>의 서술자는 갈등 해소의 매개 적 장치로서 유연에게 가장 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는 태 자를 설정하여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시킨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박일용(1995), 앞의 논문, 164쪽.

대하다. 만귀비가 다시 임금을 해하려다 발각되지만 임금은 만귀비의 꿈모자 만염과 만귀비의 삼족을 죽이고 만귀비에게 응했던 궁인 칠십 여인을 죽이거나 귀향을 보내지만 만귀비는 선제가 총애하던 후궁이라 목숨을 살려 별궁에 안치하게 한다. 이와 같은 만귀비에 대한 임금의 처결은 앞서 살폈던 <류황후전>, <이씨효문록>과 같이 고전소설의 윤리적 시각이 반영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사』의 만귀비의 서사가 부차적 서사로 핵심 서사와 상동적 관계를 갖도록 구성하는 것은 <화문록>에서도 발견된다. <화문록>의 전반부는 화경과 부인 이씨와 첩인 호씨의 처첩 갈등이 주가 되는데, 호씨는 갖은 계략으로 이씨를 괴롭히고 화부에서 이씨를 축출한다. 그러다 화경은 우연히 양진이라는 서생을 만나 호씨의 음모를 깨닫게 되어 호씨를 내쫓는다. 후반부는 호씨가 화경과 이부인에게 원한을 품고 만귀비를 사주하여 만귀비의 딸 태아공주를 화경과 혼인시키는 과정에서 만귀비의 주도로 화경과 이씨에게 고난을 가하는 새로운 갈등이 펼쳐진다. 『명사』의 만귀비의 서사는 <화문록>에서는 후반부의 화경과 이씨에게 새로운 고난을 가하는 서사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후반부의 만귀비가 화경과 이씨에게 가하는 고난담은 전반부의 서사와 상동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부의 화경과 호씨의 서사와 후반부에서 임금과 만귀비의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화문록〉의 화경과 호씨의 서사	〈화문록〉의 임금과 만귀비의 서사
① 화경은 외가에 갔다 오다가 죽서루에서 호씨를 만나고 첫눈에 호씨의 아름다움에 매혹됨. ② 화경은 이씨와 혼인 후에도 호씨를 잊지 못하고 호씨를 재취하게 됨. ③ 화경의 사랑을 독차지한 호씨는 이씨를 모해하기 위해 시부모 생일날 이씨의 시비를 매수하여 술잔에 독을 타고 이씨의 소행으로 미	① 임금과 만귀비에게는 14살된 태아공주가 있는데 호씨는 만귀비가 화경을 부마로 삼도록 계략을 꾸밈. ② 만귀비를 총애하던 임금은 화경을 부마로 간택하고 이씨는 첩으로 강등한다는 교서를 내림. ③ 화경은 불가함을 상소하고 임금이 만귀비를 총애하고 만귀비 아버지 만안 등의 참람함

<p>루자 이씨는 의심을 받음.</p> <p>④ 호씨는 얼굴이 바뀌는 개용단을 구하여 이씨가 되어 외간남자를 불러들여 시부모와 남편을 죽일 계교를 꾸미는 것처럼 하여 화경의 증오를 불러일으킴.</p> <p>⑤ 호씨는 시비 약난과 짜고 이씨가 이씨의 문객인 설경윤과 사통한 것처럼 꾸미고 이씨를 후원 별당에 가둠.</p> <p>⑥ 화경과 화공은 호씨의 단약에 중독되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씨를 원위에서 폐하고 호씨를 원위로 올림.</p> <p>⑦ 호씨는 이씨가 아들을 낳은 것을 질투하여 이씨와 갓난 아이를 강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지만 이씨의 외삼촌 유세랑이 이씨와 아이를 발견하고 구출하여 친정으로 보냄.</p> <p>⑧ 서방을 순무하던 화경은 우연히 양진이라는 서생을 만나 첩에게 현혹되어 정실 부인을 죽인 이야기를 듣고 호씨의 음모를 깨닫게 됨.</p> <p>⑨ 집으로 돌아온 화경은 호씨를 내쫓고 이씨의 생사를 탐문하던 중 처가에서 이씨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이씨를 데리고 와 다시 화락함.</p> <p>⑩ 친정으로 쫓겨난 호씨는 분통해하며 화경과 이씨를 죽이려는 계획을 짤.</p>	<p>을 말하고 죄 주기를 청하는 만언소를 올림.</p> <p>④ 임금은 분노하여 화경을 옥에 가둠.</p> <p>⑤ 만귀비가 참소하여 화경의 부인 이씨와 아버지 이광운을 참소하라고 하자 임금은 이씨를 축도 해남땅에 유배보냄.</p> <p>⑥ 임금의 만귀비에 대한 은총이 날로 더하여 임금은 태자를 내쳐 조대 땅을 살피라고 내보내고 중전은 내궁에 가둠.</p> <p>⑦ 임금에게 잘못임을 간하다가 죄를 입은 신하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간 신하가 부지기수이며 만안 등 만귀비 일파가 민간에 폐단을 무수히 일으킴.</p> <p>⑧ 중전은 임금의 박대와 만귀비의 모해로 고통을 받고 슬퍼하다 병이 들어 죽게 됨.</p> <p>⑨ 얼마후 임금이 병이 들어 임종 전 태자를 불러 간악한 정에 빠져 중전과 충신을 물리친 것을 후회하며 충신을 다시 쓸 것을 말함.</p> <p>⑩ 태자가 보위에 올라 유배갔던 신하를 부르 고 충신과 어진 신하를 다시 쓰고 대사면령을 내림.</p> <p>⑪ 임금이 만귀비는 냉궁에 안치하고 태아공주는 서인으로 강등시키나 선제를 생각하여 만귀비는 별궁으로 옮기고 태아공주는 공주의 직위를 다시 회복시켜 줌.</p>
--	---

<화문록>에서 『명사』의 만귀비의 서사는 후반부의 임금과 만귀비의 서사로 재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 호씨는 첫째 부인 이씨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화경에게 이씨를 음해하여 축출하지만 화경이 호씨의 음모를 알게 되어 자신을 내치자 만귀비를 움직여 화경을 부마로 삼게하는 데서 만귀비의 서사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나 후반부의 만귀비의 서사는 독립적인 서사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의 화경-이씨-호씨의 서사와 상동적인 의미<sup>13)</sup>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후반부에도 전반부의 화경

13) 김용기는 화경, 양진, 임금의 서사는 유사 장면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서술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고, 이것은 감성적 애정과 가장의 제가와 치국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용기(2014), 앞의 논문, 313~314쪽.

의 서사처럼 임금-정궁, 태자-만귀비의 서사를 구성하여 판단력을 잃은 어리석은 가장과 임금이 첩의 계략에 빠져 부인과 아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서사를 재현하는 것이다.

『명사』에서 연원하는 만귀비의 서사는 <화문록>에서는 임금과 만귀비의 서사로 재구성하여 화경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핵심적 서사인 화경과 호씨의 서사에서 나타나는 어리석은 가장의 잘못된 판단이 빚어내는 우여곡절을 부차적 서사에서도 유사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서사 충동이 『명사』의 만귀비의 서사를 선택하고 서사화하게 하는 것이다. 일부다처제에서의 어리석은 가부장과 봉건제에서의 어리석은 임금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핵심 서사와 부차적 서사를 상동적으로 구성하여 소설을 창작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문록>에서도 악행을 저지른 만귀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현종이 만귀비에 혹하고 간신들에게 휘둘렸던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승하하자 태자가 보위에 올라 만귀비를 궁녀들이 있는 냉궁에 안치하고 태아공주는 서인으로 삼는 처결을 내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임금은 만귀비의 죄가 중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총애했던 비이기에 냉궁에 오래 폐하여 두는 것이 편치 않다고 하면서 만귀비를 별궁으로 옮기게 하고 태아공주의 직위를 회복시키라고 명한다. 이에 모든 신하가 임금의 지극한 효와 덕에 감복하고 임금의 성덕을 기리는 결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화문록>의 만귀비에 대한 임금의 처결은 임금의 인효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은 고전소설의 윤리적 시각이 반영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고전소설의 명사의 소설적 재현과 인물 구성의 상상력

##### 1) 악과 욕망 재현의 유희적 상상력

『명사』의 만귀비의 기록은 고전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의 고난 강화적 서사 프레임을 구성하는 데 활용되고 새로운 악인형 여성 인물의 모방적 구성에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명사』의 만귀비의 기록은 고난 강화적 서사 구성이라는 구성적 측면과 악인형 여성 인물의 창조라는 인물 구성적 측면에서 소설적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고전소설은 선행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명사』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와 『만력야획편』의 <효종생모>, <만귀비>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만귀비의 행위와 인물 성격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적 상상력으로 새롭게 변용하는 측면이 있다. 『만력야획편』에서 만귀비는 투기와 악행을 본격적으로 저지르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명사』에 이르러서야 만귀비는 임금의 총애를 받고 투기와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로 고정된다. 또한 『만력야획편』과 『명사』에 기록된 만귀비는 민첩하고 기민하여 헌종의 뜻을 잘 맞추어 헌종의 총애를 받긴 하지만 젊고 아름답기 때문에 헌종의 총애를 받은 것은 아니다. 『명사』에서 만귀비는 4세에 액정에 들어가 손태후의 궁녀가 되었고, 자라서 동궁에서 헌종을 보살폈는데, 헌종이 16세에 즉위할 때 만귀비는 이미 35세였고 기민하여 황제의 뜻을 잘 살폈다<sup>14)</sup>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헌종은 만귀비가 젊고 아름답기 때문에 총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만귀비가 어렸을 때부터 헌종을 돌보았기 때문에 헌종은 만귀비에게 의지하

14) 四歲選入掖廷，爲孫太后宮女。及長，侍憲宗於東宮。憲宗年十六卽位，妃已三十有五，機警，善迎帝意。(『명사』 권113 「후비(后妃)」, 공숙귀비만씨(恭肅貴妃萬氏))

고 만귀비에게서 모성 같은 정을 느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만력야획편』에는 만씨가 살이 쪼서 매년 행차할 때마다 반드시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좌우에서 시립하였는데 황제가 매년 볼 때마다 사모하였다<sup>15)</sup>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만귀비는 몸매가 날씬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전소설에서 만귀비의 서사는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만귀비를 역사의 기록과는 달리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형하고 있다. 외모는 매우 아름답지만 내면은 투기와 간악함으로 가득하고 악행을 자행하는 팜프과탈형 인물로 만귀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인물 만귀비를 고전소설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할 때 소설 작가는 만귀비를 통해 악과 욕망을 최대한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유희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사』에서 나타나는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도 놀랄만한 것이지만 고전소설에서 재현되는 만귀비의 악행과 투기, 만귀비를 모방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여성 인물의 투기와 악행은 현실에서 금지하고 있는 극단적 범법 행위이다. 그러나 고전소설에서 재현되는 만귀비의 서사나 만귀비를 모방하여 구성되는 여성 인물은 이런 극단적 범법 행위를 정교하고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류황후전>에서 만귀비는 후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지녔고 역모나 근친살해와 근친상간과 같은 패륜을 남녀 주인공이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남녀 주인공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 <이씨효문록>의 만씨는 뛰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자 남편을 죽이고 남편의 처첩을 제거하며, 남편의 아이들을 살해하고, 모든 것이 여의치 않자 다른 남자와 사통하고 도망치기까지 한다. 이것은 『명사』의 만귀

15) 萬氏豐豔有肌，每上出遊，必戎服佩刀侍立左右，上每顧之輒爲色飛。(『만력야획편(萬曆野獲編)』 권3, 「궁위(宮闈)」, <만귀비(萬貴妃)>

비의 투기와 악행, 만귀비의 성격을 참조하지만 고전소설에서 만귀비의 서사를 만들고 인물을 구성할 때는 보다 자극적인 구성과 인물 창조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적 인물 만귀비는 고전소설에서 현실적 금기 너머에 있는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선택된 인물이고 고전소설의 유희적 상상력에 의해 새로운 악인형 여성 인물의 서사와 인물 구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욕망, 애정 욕망, 성적 욕망 등을 허구적으로 극대화하는 수단이 되며 적나라한 인간 욕망의 세계를 허구적으로 표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명사』의 만귀비의 기록에서 촉발되는 만귀비 서사와 만귀비의 성격은 국문장편소설의 악인형 여성 인물을 구성하는 데 참조의 틀이 된다. 국문장편소설에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만 투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악인형 여성 인물이 연적(戀敵)을 없애기 위해 펼치는 투기와 악행의 서사가 반복되고 있고 권력 욕망, 애정 욕망, 성적 욕망의 화신으로 성격화되는 악인형 여성 인물의 전형적 캐릭터가 빈발한다. 이와 같은 국문장편소설의 악인형 여성 인물의 서사와 성격화는 『명사』의 만귀비 서사 같은 전형화된 악녀형 서사에서 촉발되어 그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으로 악과 욕망을 재현하려는 유희적 상상력이 살을 만들고 외형을 꾸미면서 역사보다 더욱 강화된 악인형 여성 인물의 서사와 인물이 창조되기도 하는 것이다.

## 2) 어리석은 가부장에 대한 반감 재현의 비판적 상상력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효공선행록>과 <화문록>에서 『명사』의 만귀비 서사는 주로 부차적 서사로 구성되었는데 이 부차적 서사는 핵심 서사와 상동적 구조를 지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유효공선행록>의 핵심 서사는 유연의 서사인데 유연의 서사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간악한 작

은 아들의 참소와 간계에 빠져 효우관인한 큰 아들에게 고난을 가하다 후에 잘못을 깨우치는 것으로 요약된다. <유효공선행록>의 부차적 서사는 태자의 서사인데 이 부차적 서사는 핵심 서사와 상동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서사로 구성된다. 여기서 선택되는 것이 곧 『명사』의 만귀비 서사이다. 어리석은 임금이 후궁인 만귀비의 참소와 간계에 빠져 정궁과 어진 태자를 박대하여 고난을 가하고 시간이 흐른 후 잘못을 깨우치는 것이다. <회문록>의 핵심 서사인 화경과 호씨의 서사와 부차적 서사인 임금과 만귀비의 서사도 역시 <유효공선행록>과 유사한 양상으로 서사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유효공선행록>과 <회문록>에서 핵심 서사와 상동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명사』의 만귀비 서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유효공선행록>과 <회문록>에서 『명사』의 만귀비 서사를 부차적 서사로 구성하는 이유는 암훈하고 어리석은 가부장에 대한 문제와 반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핵심 서사에서도 어리석은 가부장에 대한 서사가 펼쳐지고 있지만 부차적 서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서사 프레임이 상동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어리석은 임금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명사』에서는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이 강조될 뿐이지 현종의 어리석음은 도드라지게 서술되지 않는다. 『명사』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의 기록에서 현종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은 배경화되어 있고,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은 양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명사』를 읽는 독자가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을 수수방관하는 현종의 무력함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만 현종의 어리석음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소설의 작가는 『명사』의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에서 현종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고전소설의 부차적 서

사로 만들고 핵심 서사와 유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상동적 구성의 프레임을 짠다. 이것은 『명사』의 만귀비 서사를 만귀비의 개인적 악행의 서사로만 읽지 않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서사로 만 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와 어리석은 가부장에 대한 반감을 재현하고자 하는 소설적 상상력이 작동하여 만들어내는 서사 구성이라 하겠다.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처첩을 거느리는 일부다처제 사회에서는 처첩간의 반목과 갈등이 많았을 것이고 그 사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부장의 문제가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또한 임금이 절대 권력을 누리는 봉건제에서도 후궁과 간신들의 간계에 빠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사나 가정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임금도 많았을 것이고 그 후유증은 심각했을 것이다. <유효공선행록>과 <화문록>의 작가는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명사』의 만귀비 서사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다. 소설 작가는 현실에서 발견되는 암혼한 가부장과 임금의 부정적 처신을 소설적 모티브로 하여 핵심 서사로 만들고 『명사』의 만귀비 서사를 어리석은 가부장과 임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해석하여 소설적 변형을 통해 부차적 서사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서 당대의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소설화하는 서사 충동과 현실 비판적 상상력이 강하게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 3) 인효와 관용 재현의 윤리적 상상력

마지막으로 우리는 <류황후전>, <이씨효문록>, <유효공선행록>, <화문록>의 결말에서 임금이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류황후전>에서는 만귀비의 악행이 발각 되어도 왕위에 오른 태자는 만귀비의 죄를 죽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절도

에 유배보내고, <이씨효문록>에서도 태자가 흥치제로 즉위하여 간신과 만귀비 일파를 척결할 때 만귀비는 선제가 총애하던 후궁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북궁에 안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또한 <유효공선행록>에서도 태자는 보위에 올라 만귀비는 선제가 총애하던 후궁이라 목숨을 살려 별궁에 안치하게 하고 <화문록>에서도 임금은 만귀비를 냉궁에 안치하고 태아공주는 서인으로 삼는 처결을 내린 후 선제를 생각하여 만귀비를 별궁으로 옮기게 하고 태아공주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는 결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만귀비의 죄상이 밝혀졌지만 죽음으로 단죄하지 않고 선제를 생각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은 임금의 어진 마음과 효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고전소설의 윤리적 시각이 반영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명사』와 『만력야획편』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만귀비의 결말과 다른 고전소설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에서는 만귀비가 급병이 들어 갑자기 죽은 것<sup>16)</sup>으로 서술하고 있고, 『만력야획편』 <만귀비>에는 만귀비가 궁녀 하나를 때리다가 화가 끝까지 올라 숨이 막히고 가래가 올라 결국 죽게 되었고 황제도 만귀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울해하다가 조정 일도 돌보지 않고 끝내 죽었다<sup>17)</sup>고 서술하고 있다. 『명사』와 『만력야획편』의 역사적 기록에서 만귀비는 죽음을 맞는 과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명사』의 <공숙귀비만씨>의 마지막 부분에서 효종이 즉위한 후 어사 조린이가 만귀비의 시호를 삭제하자는 건의를 하고 서육이 기태후를 진찰한 어의를 잡아 기태후의 죽음과 관련된 만귀비의 사주를 심문하자고 했지만 효종은 더 이상 만귀비의 죄상을 들추어내는 것은 선제의 뜻

16) 二十三年春, 暴疾薨, 帝輟朝七日(『명사』 권113 『후비(后妃)』, <공숙귀비만씨(恭肅貴妃萬氏)>)

17) 成化二十三年, 撻一宮婢, 怒極, 氣咽痰湧不復蘇, 急以訃聞. 上不語久之, 但長歎曰: 萬侍長去了, 我亦將去矣. 於是悵悵無聊, 日以不預, 至於上賓(『만력야획편(萬曆野獲編)』 권3, 『궁위(宮闈)』, <만귀비(萬貴妃)>)

을 어기는 것이라 하고 그만하게 하였다<sup>18)</sup>는 기록이 있다. 이 부분은 선제를 생각하여 만귀비의 악행을 덮어두려는 효종의 효성과 관용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류황후전>, <이씨효문록>, <유효공선행록>, <화문록>의 만귀비에 대한 처분은 『명사』의 효종의 효성과 관용의 자세에서 포착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고전소설에서는 『명사』보다 만귀비의 악행에 대해 더 너그럽고 관용적인 결말을 구성한다. 만귀비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고통을 받고도 임금은 아버지가 총애한 후궁이기 때문에 만귀비를 죽이지도 않고, 태장을 내려 만귀비의 신체를 훼손하지도 않으며 정배를 보내지도 않고 궁궐에 유폐시키는 정도의 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죽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의 발로이자 새로 즉위한 임금의 인과 관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처결 때문에 조정과 재야에서는 임금의 효성과 성덕을 치하하고 진정한 성군으로 존경하게 되는 것이다.

고전소설의 이와 같은 결말은 아들의 지극한 인효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소설 향유층이 공유하고 있는 유교 윤리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만귀비의 서사를 소설화하는 고전소설이 만귀비의 악행을 죽음으로 되갚지 않고 관용으로 만귀비의 악행을 용서하는 결말을 만드는 것은 유가의 핵심 윤리인 인효를 드러내고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효, 관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유교적 윤리에 강박된 윤리적 상상력이 이러한 소설 결말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 결말은 만귀비 서사를 소설화하는 소설 결말에서 상호텍스트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소설 작가가 역사를 소설화할 때 이와 같은 유교 윤리적 상상력에 강하게 견인

18) 弘治初, 御史曹璘請削妃諡號. 魚臺縣丞徐頊請逮治診視紀太后諸醫, 捕萬氏家屬, 究問當時薨狀. 孝宗以重違先帝意, 已之.(『명사』 권113 「후비(后妃)」, <공숙귀비만씨(恭肅貴妃萬氏)>)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많은 국문장편소설에서 계모와 양모가 악행을 저질러도 이들은 그들의 악행을 단죄하지 않고 용서하거나 회개하는 결말을 구성하는 것도 바로 이 인효와 관용을 재현하는 윤리적 상상력 때문인 것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본 연구는 『명사』에서 연원하는 만귀비의 역사적 기록이 고전소설에서 서사적으로 재현되고 인물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통해 역사를 소설화하는 소설적 상상력을 논의하였다.

고전소설의 선행 텍스트가 되는 아사류인 『만력야획편』의 <효종생모>와 <만귀비>에서는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에 치중하지 않았지만 정사인 『명사』의 <효목기태후>와 <공숙귀비만씨>에서는 만귀비의 투기와 악행, 효종의 고난이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아사류인 『만력야획편』의 만귀비 기록보다 정사인 『명사』의 만귀비 기록이 보다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고 우리 고전소설에 와서는 새로운 서사적 사건과 악인형 여성 인물 구성으로 만귀비를 허구화하는 소설적 상상력이 꽃을 피운다고 하겠다. <류향후전>에서 만귀비의 서사는 전체 서사로 구성되고 남녀 주인공의 고난 강화적 서사 프레임이라는 서사적 사건으로 재현된다. <유효공선행록>과 <화문록>에서는 만귀비의 서사가 후반부 서사로 구성되고 핵심 서사와 상동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차적 서사로 재현되고 있다. <이씨효문록>에서는 만귀비를 모방한 새로운 악인형 여성 인물 만씨를 형상화하는 인물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효공선행록>은 18세기 전반에, <화문록>은 18세기 후반에 창작되



었다고 추정되고, <이씨효문록>은 18세기 전반에, <류황후전>은 19세기 후반에 창작되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고전소설에서 재현되는 만귀비 서사가 고전소설의 창작 시기에 따른 일정한 흐름이나 연속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귀비 서사가 소설적 사건이나 인물로 재구성될 때 관통하는 소설적 상상력의 양상은 정리해볼 수 있다. <류황후전>에서 만귀비의 서사는 남녀 주인공의 고난 강화적 서사 프레임으로 재현되고, <이씨효문록>에서는 만귀비를 모방한 만씨라는 악인형 여성 인물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악과 욕망을 재현하려는 유희적 상상력이 작동된다. 역사적 인물 만귀비는 고전소설에서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역사에서 선택된 인물이고 고전소설의 유희적 상상력에 의해 역사보다 더욱 강화된 악인형 여성 인물의 서사와 인물이 창조되게 되는 것이다. <유효공선행록>과 <화문록>의 만귀비의 서사는 부차적 서사로 구성되고 이 부차적 서사는 핵심 서사와 상동적 구조를 지니는데 부차적 서사와 핵심적 서사 모두에서 어리석은 가부장과 임금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작가는 『명사』의 만귀비 서사를 어리석은 가부장과 임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고전소설에서는 부차적 서사로 변형하여 핵심 서사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대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소설화하려는 현실 비판적 상상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효공선행록>, <화문록>, <이씨효문록>, <류황후전>의 결말에서 만귀비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결말을 공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만귀비에 대한 처분은 아들의 지극한 인효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소설 향유층의 윤리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유가의 핵심적 윤리인 인효를 드러내고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윤리적 상상력이 이러한 소설 결말을 공통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적 인물 만귀비를 고전소설에서 사건과 인물로 재현하는 상상력을 통해 고전소설이 역사적 인물 만귀비의 사건이나 인물을 소설화하는 이유와 계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역사적 기록인 만귀비의 서사는 악과 욕망을 재현하고자 하는 유희적 상상력, 어리석은 가부장에 대한 반감을 재현하고자 하는 비판적 상상력, 인효와 관용을 재현하고자 하는 윤리적 상상력을 촉발하는 역사적 허구성을 지닌 질료이기 때문에 고전소설에서 선택되는 것이다. 고전소설 작가는 명사를 참조하고 모방하여 만귀비의 악행과 투기의 서사와 인물 자질은 그대로 반복하지만 소설 장르의 특성과 당대의 현실 문제와 향유층의 윤리의식에 의해 만귀비를 재창조해낸다. 작가는 역사에서 연원하는 만귀비를 허구적 소설 세계의 인물로 되살리면서 악과 욕망을 재현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리석은 가부장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며, 인효와 관용이라는 윤리적 시각을 재현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씨효문록>,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6, 경인문화사, 1993, 1~506쪽.
- <이씨효문록>,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7, 경인문화사, 1993, 1~441쪽.
- 김기동 편, <유효공선행록>,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15, 아세아문화사, 1982, 3~482쪽.
- 김기동 편, <유효공선행록>,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16, 아세아문화사, 1982, 3~481쪽.
- 임치균·김태환·허원기·이지영 교주, 『화문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15~295쪽.
- 임치균·송성욱·윤김, 『화문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9~304쪽.
- 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류황후전>,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20, 은하출판사, 1981, 93~164쪽.
-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明史』, 『漢籍電子文獻資料庫』,  
<http://hanchi.ihp.sinica.edu.tw/ihpc/hanjiquery>.
- 『宮闈』, 『萬曆野獲編』 권3, <https://zh.wikisource.org/wiki>.
- 강문중, 『<화문록>, 투기(妬忌)와 불투기(不妬忌)의 서사』,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2017, 163~191쪽.
- 강정만, 『명나라 역대 황제 평전』, 주류성, 2017, 196~246쪽.
- 김동욱, 『<이씨효문록>의 ‘효’ 관련 서사와 다층적 서술의식 연구』, 『열상고전연구』 52, 열상고전연구회, 2016, 239~265쪽.
- 김문희,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과 독서 과정』, 『한국고전연구』 3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211~245쪽.
- 김서운, 『<화문록>의 여성인물 형상화와 그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199~226쪽.
- 김용기, 『<화문록>의 서술방식과 주제의식의 관계』, 『한민족어문학』 66, 한민족어문학회, 2014, 299~322쪽.
- 김진영, 차충환, 『<태아선적강록>과 <유황후전>의 비교 연구』, 『어문연구』 14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247~270쪽.
-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 15,

-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5, 151~176쪽.
- 이수봉, 「화문록 연구」, 『개신어문연구』 1, 개신어문학회, 1981, 225~249쪽.
- 이순우, 「〈화문록〉 연구」, 『한국고전연구』 2,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206~231쪽.
- 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선청어문』 19,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1, 253~292쪽.
- 이승신, 채수민, 송정화, 「〈만력야획편·사인〉 번역 및 주석」, 『중국어문논총』 79 권, 중국어문연구회, 2017, 401~402쪽.
- 이지영, 「〈화문록〉의 텍스트 형성 및 서술시각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371~398쪽.
- 이지하, 「여성인물 형상화를 통해 본 〈화문록〉의 소설사적 위상 재고」, 『국제어문』 79, 국제어문학회, 2018, 135~160쪽.
- 임종욱,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412쪽.
-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9, 209~229쪽.
- 임치균, 「〈이씨효문록〉 연구」, 양포 이상택 교수 환력기념논총위원회 편, 『한국고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479~506쪽.
- 전용문, 「〈이씨효문록〉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0, 한국언어문학회, 1998, 309~326쪽.
- 조재현,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필사본 〈유황후전〉 연구」,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101~131쪽.
- 차충환, 「〈화문록〉의 성격과 장편규방소설에 접근양상」, 『인문학연구』 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 103~131쪽.

ABSTRACT

The Imagination of Novelistic Reproduction of Ming History and  
Character Composition in Classic Novels

— Focusing on Manguibi in Ming History

Kim, Mu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novelistic imaginations through the aspects in which Manguibi(萬貴妃), a historical figure in Ming history(明史) is reproduced as narrative events and characters in classic novels. Historical records on Manguibi originate from Manryuk-yawhackpeon(萬曆野獲編), an unofficial history and an official Ming history. Records about Manguibi in the Manryuk-yawhackpeon has more fictional characteristics than that of Ming history. Novelistic imagination which fictionizes Manguibi is maximized in our classic novels. In Ruhwanghujeon(劉皇后傳), Narration of Manguibi is reproduced as a narrative frame which reinforces hardship of hero and heroine. In Yuhyogong-seonhaengnok(柳孝公善行錄) and Hawmunrok(花門錄), the narration of Manguibi is composed of secondary narrations. This secondary narration is reproduced to have the same relation with key narrations. In Leessihyomunrok(李氏孝門錄), It appears that Ms. Man, an evildoer character mimicking Manguibi is newly composed. Novelistic reproduction of Manguibi and character composition like these can be possible due to novelistic imagination which novelizes the history. The narrative frame which reinforces hardship of hero and heroine in Ruhwanghujeon and the character composition of Ms. Man in Leessihyomunrok result from amusing imagination to reproduce evil and desire. The amusing imagination in classic novel enables to create more reinforced narrations on female villains and the character itself than real history. The composition of the same relation frame between key and secondary narrations in Yuhyogong-seonhaengnok and Hawmunrok

result from critical imagination which shows hostility against foolish patriarch and King. Clemency for Ms. Man in the ending of Yuhyogong-seonhaengnok, Hawmunrok, Leessihyomunrok, and Ruhwanghujeon indicates the intervention of ethical imagination which reflects ethical views of readers. Thus, the narration of historical records about Manguibi is reproduced because it is historical material which can trigger amusing imagination, critical imagination, and ethical imagination from classic novelists.

**Key Words** Ming history, Manguibi, novelistic reproduction, character composition, imagination

논문투고일	: 2019.07.11
심사완료일	: 2019.08.07
게재확정일	: 2019.08.16